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12~13면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
논란

11, 13, 14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8~10면

유대인 역사학자
일란 파페가 말하는
이스라엘 내
반네타냐후 시위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정치 위기와
공화당의 급진화

5면



교사 운동과 쟁점

16, 15면

朝鮮日報

국제 > 국제일반

하마스 ‘어린이 참수’ 사진 본 바이트
“이럴 줄 꿈에도 몰랐다”

이스라엘 리포터가 최초 보도
구호단체 관계자도 “직접 봤다”

The JoongAng

국제 : 국제일반 |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한 곳서 아기 시신 40구...일부는 훼손"

Q 동아일보

동아일보 | 오피니언

한겨레

[사설]일가족 몰살, 참수, 악마의 무기... 용서받지 못할 전쟁범죄

가자지구서 이-팔 어린이들이 학살당하고 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정착촌 어린이들까지 참수
전례 없는 보복에 가자 주민 “아이들이 무슨 죄”

어린이아이 참수는 언론의 거짓말이다

관련 기사 4~5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인종 청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감히 반항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처벌하려 단단히 마음먹었다. 1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이스라엘은 모두를 공격하려 하고 있어요.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무자비한 공격에 직면해 있는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 중 한 명인 아레지 씨의 말이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쏟아지는 동안 아레지 씨는 이렇게 전했다. “공격의 규모가 2014년, 2021년보다도 큼니다. 이스라엘 전함이 우리에게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카라에서 백린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해 이집트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9일 월요일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짐승”이라고 부른 것은 그다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비극

굶욕을 당하고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국가는 정착민 식민 점령에 감히 저항했다는 이유로 가자지구의 수많은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이 가자지구에서 가한 공격은, 서방 제국주의가 완전 무장시킨 이스라엘 국가가 무적이 아님을 보여 줬다.

이스라엘은 식량 · 연료 · 전기 · 생필품 공급을 차단했고, 가자지구 전역을 폭격해 초토화했다. 11일 아침 현재

팔레스타인인 최소 950명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살해당했다. 그중 260명은 어린아들로 추산된다.

아레지 씨는 이렇게 전했다.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력이 끊겼어요. 이스라엘이 연료 공급을 차단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발전기 가동이 중단될 거예요. 식량이 곧罄竭죠.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미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식량 · 식수 · 연료 · 전기가 없으니 병원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심지어 전력 회사도 폭격을 당했어요.

“세탁도 불가능할 것이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곳 상황은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의 확전이 오래 이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가자지구 사람들 모두에게 끼칠 심리적 영향도 두렵습니다.”

갈란트는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저항 세력 하마스를 섬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상군 투입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2251명(추산)을 살해한 2014년 이래 처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게 지상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네타냐후의 계획을 지지하며 미국이 “이스라엘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보내는 중임을 확인시켜 줬다.

영국 보수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환호했다.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셉스는, 이스라엘 정부의 공격은 하마스의 행동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 셉스는 이스라엘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것은 이스라엘군이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참말이다. 이스라엘은 서방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폭력을 휘두르며 정착민 식민 점령, 아파트헤이트[인종 분리], 인종차별 체제를 유지하려 하는 압제자다.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식민 점령을 당하는 피억압 민중이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에게 연대를 표해야 한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We fear ethnic cleansing”—Palestinian in Gaza (2023. 10. 11) /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는 긴급 행동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다

“우리의 혼과 목숨으로 가자를 지키자.”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아랍어, 영어, 한국어 구호로 연달아 터져 나오자, 인근의 직장인들, 행인들의 이목이 일제히 집중됐다.

10월 11일 오후 12시 반에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저항은 정당하다!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긴급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공지된 지 48시간도 안 된 긴급 호소 집회였고, 평일 낮에 열렸는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한국 거주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우즈베키스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집회는 급박한 현지 상황을 반영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는 배너, 팻말, 팔레스타인 국기가 집회장을 수놓았다.

참가자들은 가자 지구 봉쇄를 돌파한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와 보복 공습 · 폭격에 대한 분노를 뜨겁게 표현했다.

노동자연대이원웅 활동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시 프로파간다를 비판했다.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정부들과 언론들은 폭력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폭력적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 현지 친구와 전화 통화도 연

결했다. 이스라엘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끊고 식량과 의약품, 위생용품의 반입을 막고 있고 심지어 구급차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던 중 통화가 끊겼다. 공습이 시작돼 통화가 끊어진 것이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팔레스타인 깃발과 다양한 팻말을 들고 광화문 사거리와 종각 등을 행진했다.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인근 직장인들과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행진을 유심히 지켜봤다.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과 영상을 찍기도 했다.

행진 대열은 이스라엘 대사관 100미터 앞에서 멈춰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서 정리 집회를 열었다. 집회 오는 길에 폭격으로 사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

은 가자 출신 팔레스타인인은 평화 행진에 돌아온 것이 총탄 뿐이었다며 무장 저항 비난을 반박했다.

집회가 끝나고도 참가자들은 서로 인사하며 연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일부 좌파마저 서방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전시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아 양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온전히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미국의 오랜 우방국에서 열린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집회 전후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SNS로 정보를 공유하고 감사 인사를 보내 왔다.

이재혁·김문성

※ 취재기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보세요.

팔레스타인 저항이 인종차별 국가 이스라엘에 한 방 먹인 것을 기뻐하자

1968년 베트남 구정(“땃”) 공세 때처럼 팔레스타인인들의 기습 공격은 제국주의의 궤대를 꺾었다.

이스라엘 국가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했고, 충격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지난 주말 겪은 패배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일 자 <이스라엘 하음>은 이렇게 논평했다. “우리는 적들의 등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그만하라고 빌게 만든 뒤, 거기에 대고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잔혹하고 실재 없이 공격을 퍼부어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국제법을 무시하고 가자 지구에 사는 수백만 명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 한다.

일요일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로 가는 전기, 연료, 재화를 끊을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네타냐후는 “우리는 길고 고된 전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전투기와 대포를 동원해 폭격한 지 24시간 만에 팔레스타인인 12만 3540명이 집을 잃었다고 UN은 밝혔다.

끔찍한 고통과 살육, 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모두 이에 맞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보복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거둔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1968년 1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구정 공세였다. 구정 공세는 미국 정부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기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서 민족해방전선 전사들은 미 대사관 건물에 구멍을 내고, 점령군의 땅을 밟았다. 지난 토요일 팔레스타인인들도 자신들을 가뒀던 장벽을 허물고 이스라엘에 빼앗

긴 땅을 밟았다.

구정 공세는 미국의 패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지난 주말과 꼭 마찬가지로 구정 공세는 억압받는 이들이 그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스라엘과 꼭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도 다가오는 폭풍을 앞잡아 보고 있었다. 미국 장교 샘 오글즈비는 베트남 내 스파이들이 “발전기 소리로 귀가 먹먹한 기지 안에 머무르며 실제 세계와는 차단된 채, 자신들이 돈으로 매수한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가짜 ‘첩보’나 수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장교들도 하마스가 거대한 전투에 나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도 보안 당국의 동향 보고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피하

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봤다. 로켓 공격과 남부 습격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장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베트남 구정 공세는 군사적으로는 결국 패배했다. 구정 공세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8만 4000명 중 5만 800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미국의 전범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군사적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의 적은 정치적 전쟁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게릴라전에 관한 기본 명제를 간과하게 됐다 — 게릴라는 패배하지 않는 이상 이긴다는 것을 말이다.”

베트남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은 정당하다. 그리고 저항으로 승리할 수 있다.

찰리 김버

출처 Charlie Kimber, 'Rejoice as Palestinian resistance humiliates racist Israel' (2023.10.9) / 번역 김중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영웅적 무장 투쟁은 중동 곳곳의 노동자 대중 투쟁이 뒷받침돼야만 더 나아갈 수 있다.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저항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에 이제 직면해 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세력, 가자 지구의 민간인 지역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이를 자랑하는 세력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전사를 “인간 짐승”이라고 칭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유엔 같은 기구나 강대국들로부터 구원은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학살과 강탈을 겪더라도 타협하고 진정하라고만 해 왔다.

그 말을 따른 결과는 이스라엘의 경

멸적 대접이었다. “온건파”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2014년 이래로는 이 조직들과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

아랍 정권들은 자국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만큼, 팔레스타인 저항이 불평등과 민주주의, 자유라는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제기하는 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이란 정권은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있고 이들은 해방자가 아니다.

75년간 아랍 정권들은 팔레스타인의 편에 선다고 떠들었으나 배신했을 뿐이다. 그 정권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고립시키려고 관계 “정상화” 운운하자 그 전략에 놀아났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해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1년이 넘게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정부 내부의 분열과 긴장에 관한 보도가 넘쳐났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으로 시온주의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모든 얘기는 국민 통합 정부 결성과 “반대파”가 우두머리 도살자 벤야민 네타냐후와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웅적인 무장 투쟁은 이스라엘에 거듭 도전해 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F-16 전투기와 최신 살상 기술 앞에서 영웅적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온주의와 제국주의에 도전할 혁명적 사회주의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대안의 필수적 요소는 온갖 지배계급과 분리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레바논과 요르단의 난민 캠프에서 시작된 대중적 민족주의 운동부터 1987년 1차 인티파

다와 2021년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한 팔레스타인 저항의 물결은 사회적 불평등과 민족 억압의 상호작용에 의해 추동됐다.

그리고 그런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만의 반란을 넘어 아랍 세계와 그 이상의 민중을 고무하는 운동으로 성장해야 한다.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항쟁과 혁명들, [2018년에 시작된] 수단인들의 저항과 [2019년] 알제리에서 벌어진 운동은 승리의 잠재력을 활짝 보여줬다. 그러려면 노동자들과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런 혁명은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그리고 모든 독재자와 왕들을 떨게 만들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전 세계에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될 것이다.

출처 Socialist Worker, 'How can Palestinians beat Israel and imperialism?' (2023. 10. 10) / 번역 오수민

하마스의 어린아이 참수?

— 언론의 이스라엘 전쟁범죄 옹호 거짓말

백악관은 바이든이 '증거 사진'을 본 게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주에 거의 모든 언론들은 하마스 전사들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 공격 당시 어린아이 40명을 참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하마스가 극악무도한 야만 인임이 분명하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팔레스타인인 살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언론인·정치인들은 이제 발뻘하고 있다.

백악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어린아이들을 참수했다는 증거 사진"을 봤다는 바이든의 11일자 발언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없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다. 바이든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주장과 언론 보도에 근거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 참수의 증거는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거짓말의 해악적 효과는 이미 실질적이다. 카타르에 거주하는 연구자 마크 오언 존스에 따르면, 그 확인되지도 않은 보도는 'X' (트위터의 새 이름)에서 24시간 만에 최소 4400만 회 노출됐고, '좋아요'를 30만 개 받았고, 10만 번 퍼날라졌다.

어린아이가 참수당했다는 주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려고 늘어놓은 거짓말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 주장의 최초 출처는 하마스의 공격 후인 10일 화요일, 가자 지구 인근 유대인 정착촌 '크파르 아자'를 방문한 기자들이었다.

최초로 보도한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TV 방송국 <i24 뉴스> 소속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망자 시신을 수습한 군인들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니르 바르카트는 10일 저녁 영국 TV 방송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금 확인했다. ... 어린 남자아이 40명이라고 들었다. 그중 몇 명은 산 채로 불태워졌고, 몇 명은 참수됐고, 몇 명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

튀르키예 언론사 <아나돌루>는 이스라엘군이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최초 보도했다. 나중에 이스라엘군은 다른 매체들을 통



이스라엘이 만들어 낸 거짓말을 뻔뻔하게 퍼나른 이번주 신문 헤드라인들

해, 자신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사자를 욕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언론인 최소 두 명이 해당 보도를 인용했던 트위터 게시글을 삭제했다. <가디언>지 기자 베탄 맥커난은 10일에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방금 오늘자 영국판 지면 1면을 봤다. 크파르 아자에서 '하마스가 어린아이 40명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헤드라인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분명 많은 어린아이들이 살해당했다. 분명 공격 과정에서 참수가 몇 건 있었다. 하지만 어린아이 40명이 참수됐다는 주장은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고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특하면 거짓말을 한다. 2006년 6월 9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해안가에서 민간인 7명을 폭발로 죽였다. 유일한 생존자인 10세 소녀 후다 갈리아가 가족들의 조각난 시신 한가운데에서 울부짖는 영상은 너무도 끔찍해서 이스라엘조차 몇 마디 사과를 웅얼거려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스라엘군은 재빨리 해변 사망 사건 조사위원회를 꾸려 눈 깜짝할 사이에 군의 책임을 스스로 면제해 줬다.

이 위원회는 이스라엘 포병 기지에서 베이트 라히아 해변으로 포탄 여섯 발을 발사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가족을 죽인 폭발은 그와는 별개라고 — 심증판구

하마스가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이라고 — 주장했다. 거짓말이었다.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단체 '카메라'는 언론 보도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술 더 떠서, 후다 갈리아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영상이 조작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시신의 위치를 옮긴 것 아닌가? 그 여자에게 시신을 발견한 장면을 재연하라고 시킨 것 아닌가? 연출된 영상 아닌가?"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이번 어린아이 참수 보도와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컨대, 1990년에는 '쿠웨이트 아기 살해' 뉴스가 회자되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결프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됐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쿠웨이트를 점령한 직후였다.

전쟁 프로파간다

이런 류 보도의 원조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전쟁 프로파간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은 독일군이 벨기에 어린이들을 공중으로 던져올린 다음 총검에다 꽂았다고 주장했다.

결프전 버전에서는, 이라크 군인들이 쿠웨이트의 현대식 병원에 난입해 미숙아 병동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서방은, 이 이라크 군인들이 인큐베이터 장비를 이라크로 후송하기 위해 미숙아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냈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보도한 것은 9월 5일자 <데일리 텔레그래프>였다. 하지

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처음에는 아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친지들의 사진도 인터뷰도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제시됐다.

'자유 쿠웨이트를 위한 시민들'을 자처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쿠웨이트 망명 정부가 돈을 낸 단체였다. 이 단체는 미국의 대형 광고기업 '힐 앤 놀튼'과 1000만 달러(약 100억 원)짜리 계약을 맺어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축출하기 위해 서방 군대가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미 하원 인권위원회가 그해 10월에 청문회를 열었다. '힐 앤 놀튼'은 15세 쿠웨이트인 소녀를 섭외해 이라크군이 아기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원의원들에게 늘어놓게 했다.

언론인 필립 나이트리는 이렇게 썼다. "그 애는 기뻐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정확한 순간에 울먹거렸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 애를 '나이라'라는 이름으로만 알았다. 그 애의 증언을 보도하는 TV 화면에는 분노와 절기에 찬 의원들의 얼굴이 비쳤다."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1세는 이 사건이야말로 사담 후세인 정부가 사악하다는 증거라며 그후 5주 동안 이 이야기를 여섯 차례나 거론했다.

상원 회의에서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낼 군사 행동 승인 여부를 논의할 때 상원의원 7명이 인큐베이터 아기 이야기를 록 집어서 거론했다. 군사 행동은 단 다섯 표 차이로 승인됐다.

진실은 그 후로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그 쿠웨이트인 10대 소녀 '나이라'는 사실 주미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고, 청문회 출석 전에 '힐 앤 놀튼'의 연출에 따라 연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프] 전쟁은 이미 과거지사가 된 뒤였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도 1964년 6월 '가짜뉴스' 이후 확산됐다.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아무런 도발이 없었는데도 북베트남 어뢰정이 통킹만에서 미 해군 전함 매덕스호를 두 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전권을 존슨에게 위임하기로 표결했다. 이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매

▶ 5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공화당은 혼돈의 사도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이 대기업 중심 미국 사회 주류에 전통적으로 내리고 있던 빛이 심각하게 바스라지고 있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적한다.

19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반대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프리카국민회의(ANC)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 “남아공을 통치 불가능하게 만들자!”

오늘날에는 공화당 우파가 미국을 통치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주에 공화당 하원 지도자 케빈 매카시가 하원의장에서 해임된 일의 의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마치 통일된 획일체인 양 말할 때가 간혹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진실이 아니다. 국가는 여러 기구들의 집합체로, 각종 기구에 기반을 둔 자들이나 주요 계급 중 하나에 기반한 자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그 안에 난무한다.

사회적 갈등의 압력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 압력 때문에 지배계급에는 국가를 통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타협이 강제된다.

이런 설명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 미국에 들어맞는다. 미국 헌법을 제정한 자들이 자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택한 방식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양원으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구조는 미국이 산업 자본주의 국가로 변모한 뒤에도, 또 지배적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변모하고 나서도 살아남았다. 양대 주요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할 태세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20세기 후반 네 명의 공화당 대통령하에서도 의회를 통제했다.

민주당은 워터게이트 사건* 덕에 1974년에 공화당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정부하에서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하에서 하원의장



트럼프와 공화당 우파가 기존 하원의장을 날려버렸다. 그 자리에 앉히려 하는 짐 조던(오른쪽)

을 지낸 샘 레이번과 팀 오닐은, 체제가 비교적 원활히 굴러가도록 일조한 능수능란한 협상가로 유명했다.

이번에 매카시는 그의 전임자들이 늘상 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타협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백악관과 상원을 통제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매카시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을 합의해 줬다. 그 대가로 정부 지출을 삭감하라는 공화당의 요구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트럼프

그러나 강성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 의원 여덟 명에게는 그런 합의가 매카시 해임을 요구할 만한 사유였다. 이 반란표들에 민주당이 가세하자 매카시 해임이 가결됐다. 하원의장이 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매카시는 하원의장 최초로 해임안 가결이라는 수모를 겪게 됐다.

이 이례적 격변은 공화당이 점점 급진화해 왔음을 보여 준다. 공화당이 대기업 중심 미국 주류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리고 있던 빛이 심각하게 바스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1994년의 이른바 “공화당

혁명”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빌 클린턴의 주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뉴트 김리치가 이끌던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할 수 있었다.

같은 과정이 2007~2009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이후 벌어졌다. 버락 오바마의 소심함 때문에 공화당은 2010년에 하원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공화당 내 극렬한 자유 시장 지지자들인 ‘티파티’ 파는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승인에 필요한 의회의 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티파티’는 미국이 실제로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기를 바라는데, 그럼으로써 미국 국가를 ‘작은 국가’로 축소시키려 한다.

미국 정부 부채, 특히 재무부 채권 발행을 통한 부채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2011년 이런 농담을 했다: “자본 축적과 부채 축적은 ... 사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동반자 관계”였으니 티파티의 요구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기로 표결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날 공화당의 급진화는 트럼프가 추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내년 공화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합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논평가 에드워드 루스는 트럼프를 “혼돈의 으름 사도”라고 부른다. 트럼프는 자기가 인수하길 바라는 정부가 부도 나길 원하고 있다. 트럼프와 하원의원들은 연방수사국(FBI) 예산 전액 삭감, 법무장관 경질,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를 주장한다.

사실 매카시가 민주당과 맺었던 합의 중에는 차기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빼는 것도 있었다. 고난만 가득할 매카시 직책의 후임으로 꼽히는 의원 두 명 중에서 트럼프는 짐 조던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조던은 우크라이나 무기 추가 지원에 반대 투표를 했다. 미국 제국주의가 더 많은 위기의 압력에 짓눌리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의 혼돈이 미국 제국주의의 작용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The US Republicans could become the apostles of chaos' (2023. 10. 09) / 번역 김준호

용어설명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에 공화당 닉슨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정적을 도청하려던 것이 폭로돼, 이후 닉슨의 대통령직 사임으로 이어진 대형 정치 스캔들.

▶ 4면에서 이어짐

덕스호는 북베트남을 상대로 비밀 작전을 펼 후 회항하는 중이었고 두 번째 공격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존슨이 전쟁 권한을 얻어낸 후였다.

크파르 아자에서도, 쿠웨이트에서도,

벨기에에서도 민간인이 살해당하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아기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적을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존재이자 거리낌 없이 도살해도 되는 짐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아기

들의 시신이 가자 지구의 잔해에서 수습됐다는 증거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 된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야만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들은 더 큰 거짓말, 예컨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착민들이 차지한 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었지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뒷받침한다. 그런 거짓말들을 꾸며내고 퍼뜨리는 바로 그 자들이 살인 공범이다.

출처 Socialist Worker, 'How the media lied about beheaded babies to 'justify' Israeli war crimes' (2023. 10. 12) / 번역 김준호

유대인 역사학자 일란 파페 인터뷰

갈림길에 접어 들다: '환상 속 이스라엘'의 대위기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의 강경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가 벌어졌다. 네타냐후가 의회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는 것을 반대한 시위였다. 일란 파페는 8월 영국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분석했다. 그 시위가 시온주의 국가의 근본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것과 함께 이 시위를 이유로 이스라엘이 민주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란 파페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해 온 유대인 역사학자다.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 청소》 등의 책이 한국에도 번역돼 있다.

현재 [2023년 8월]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운동을 이전 에 벌어진 사건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비싼 생활비에 반발해 2011년에 일어났으며 “사회 혁명”이라고 불렀던 시위들과 일부 유사하지만, 시위의 지속 기간과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볼 때 전례가 없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가 국가의 성격과 미래 지향을 둘러싸고 양분돼 내전 또는 직접적인 대립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갈등의 초기 국면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현 단계와 비교할 만한 사례조차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이 운동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규모가 크고 오래 가는 것일까요?

이 운동을 구성하는 유대인들은 1948년 건국 이래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도왔고, 그 국가의 모습에 만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시온주의



국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서안 지구(과거에는 가자 지구도)를 통치하는 방식 둘 다에서 여러모로 아파트헤이트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가의 모습은 세속적이고 유대인 우월주의적인 ‘민주주의’이며, 그 속에서 자유주의적인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예루살렘과 공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이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방식은 다소 빼그덕거리기는 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 문



사진 출처: Lizzy Sheenan

2023년 2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사법 개편안에 반대해 열린 대규모 시위

제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점령된 서안 지구, 포위된 가자 지구 중 어디에 관해서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저는 이를 ‘환상 속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민주적이고 문명화된 사회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과 더불어 또 다른 유대인 국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대 국가’라고 부르는 정착민들의 국가입니다. ‘유대 국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환상 속 이스라엘’은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국가’가 ‘환상 속 이스라엘’을 잠식하기 시작하자 ‘환상 속 이스라엘’은 국가가 신정(神政) 체제로 변할까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유대 국가’는 젠더 문제, 성소수자 권리, 사법 제도 및 공공 영역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일부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비전이나 이란 같은 국가가 공공 장소와 인권을 감시하는 방식과 크게 다

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중 중에 매주 시위를 벌여 온 이들은 시위를 통해서만 ‘유대 국가’가 ‘환상 속 이스라엘’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국가 안보 기관, 대기업, 첨단 기술 기업, 금융 기관 등) 이스라엘 지배층 일부의 지원을 받는데, 그 지배층들도 ‘유대 국가’가 자신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경우,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 사법 제도를 부적절하다고 규정할 경우 자신들이 전쟁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이 운동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네타냐후에게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 위협이 될까요?

현재 이스라엘 입법부가 9월까지 휴회 중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네타냐후가 사법 개혁을 포기하고 정통파 유대인의 군 복무 면제 문제에 대해 합의한다면, 운동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기고 다음 번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잠깐의 진정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자신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안으로부터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용어설명

아파트헤이트 국가
아파트헤이트는 남아공에서 인종별로 권리를 달랐던 체제를 가리킨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wspaper.org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조만간이든 한참 후든 이런 국가 붕괴는 일어날 것입니다. 시온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무력을 사용해 적어도 오늘날까지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극복해 왔으며, 아랍과 이슬람 세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주의의 근본적 역설을 극복하려고 무력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를 국가 정체성으로 내세우면서도 그것이 민주주의·자유주의 가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역설 말이죠. 이 내적 모순은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유대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정 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에 중용이란 없습니다(논의를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 문제는 잠시 제쳐둡시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전투에 일시적 휴전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낳는 갈등 자체는 결국제로써 게임입니다.

물론 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아랍 세계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유한 정치 모델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모델일 수는 없고 바라건대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정의로운 정치 체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전통과 현대, 세속주의와 종교를 다소 어색하더라도 상호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연계시키는 느슨하고 다종교적이며 다문화적인 국가 요소들에 기초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 안에서 서방에 속하는 유대인들의 섬이 되겠다고 주장해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비록 거의 소멸됐지만) 이스라엘 좌파는,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아랍 좌파들이 나누는 유의미한 논의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아랍 좌파들은 전통과 종교를 비롯했던 좌파의 과거 실수에 대한 자기비판적인 평가에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논의는 보편적 사회주의 가치를 각 집단의 정체성·권리와 장차 융합시킬 방법, 또한 과거와 역사적 문명의 가치를 존중할 방법을 모색하는 더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논의가 많은 아랍 국가들의 암울한 상황과 괴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랍의 봄”이라고 잘못 불려온) 아랍 세



2021년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인들이 들어가 살게 했다

계에서의 혁명의 다음 단계를 정의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파와 네타냐후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던지는) 이스라엘 내 아랍계 유대인들이 이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은 특히 비극인데요. 그들은 수도 많을 뿐 아니라 1948년 이전까지는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결국에는 ‘유대 국가’가 승리할 것이며,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사적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려 온 국제적 정당성은 ‘유대 국가’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유럽 전역의 극우파와 같은 ‘유대 국가’ 나름의 동맹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국가로 바뀌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지연시키는 데 그칠 것입니다.

노파심에 말하건대 그런 일이 내일이나 모래에 벌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네타냐후에 대한 반발과 ‘환상 속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이는 일시적인 방향 조정일 뿐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위 운동이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환상 속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점령”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받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위 운동은 국가를 안으로부터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금융 기관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회수하며, 정예 부대 및 공군 소속 예비군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응집력이 총체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언젠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역사적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 시점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적절한 민족 운동을 통해서 단결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대표하며,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위 운동을 들며 이스라엘이 여전히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박하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억압에 관한 이스라엘인들 사이의 합의는 여전히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서방 언론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엉터리로 보도하는 해악을 중화시키는 데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 연대 운동을 벌이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팔레스타인 운동이 명확한 전망을 갖도록 복돋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 단결할 수 있는 전망, 우리 모두를 해방으로 이끌 그런 전망 말이죠.

출처 Ilan Pappé interviewed by Donny Gluckstein, 'A fork in the road: Fantasy Israel's grand crisis' (2023. 10. 5) / 번역 김동욱

추천 책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팔레스타인 현대사

— 하나의 땅, 두 민족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후마니타스, 560쪽, 20,000원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박이랑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이다.



영상 보기

많은 분들이 팔레스타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일본 일초도 쉬지 않고 가자지구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5개국은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급파하고 신속한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연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지에서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고무된 사람들이 연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학생 단체들은 이스라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해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놔습니다.

오늘 제 발제에서는 이번 공격의 배경과 맥락, 파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공격이 민간인 사상자를 낳아 문제라거나, 대규모 반격만 부를 뿐이라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쟁도 다루겠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고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저항이 이스라엘을 한 방 먹이다! 10월 7일 가자지구 장벽을 뚫은 팔레스타인인들

진공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많은 정부들과 언론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입은 피해를 부각시키지만 하마스 공격의 대의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의미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버드대 학생들의 성명서가 지적했듯 이 사건은 “진공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수십 년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과

인종청소, 점령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9면)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로 인한 사상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보면 그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이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많이 죽고 다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비교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 비극이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엄청난 폭력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Mohammed Zaanoun/Activestills

이스라엘: 원주민을 내쫓고 세운 강탈국가

이런 거대한 체계적 폭력은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산물입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의 단일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정치 운동입니다. 19세기 유럽의 유대인 박해와 학살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나타난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해 이른바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이 국가를 건설하려 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서구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아 원주민들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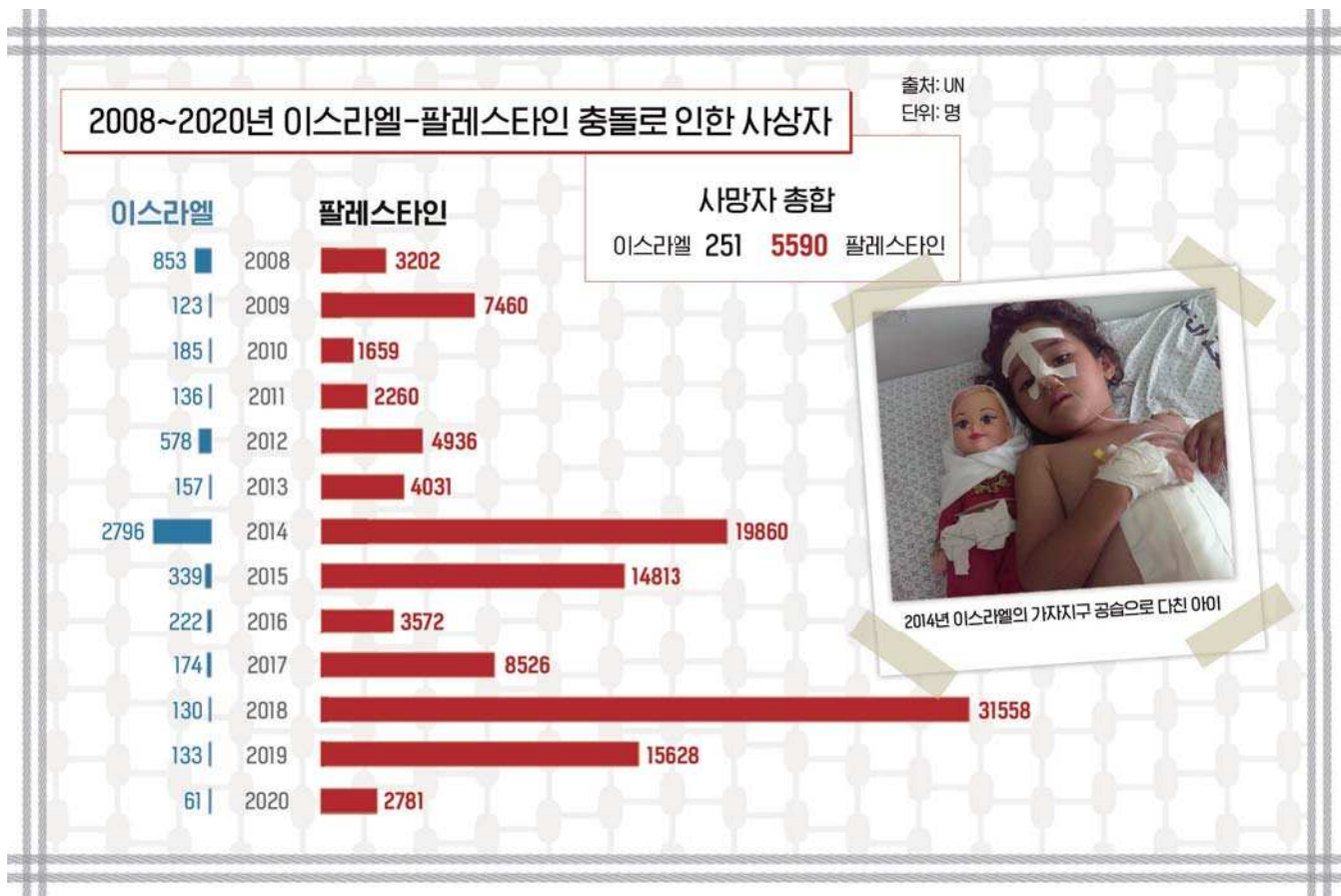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온주의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중동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경비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이 시온주의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대로 살아 온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고 학살당했습니다. 무려 80만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이 돼 이스라엘 내부와 인근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를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후 75년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체계적 인종 청소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끈질긴 저항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중동 일대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에 도전하는 모든 움직임을 짓밟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전체에서 대중적 분노의 초점이 되곤 했습니다.



추천 책

팔레스타인의 저항
필립 마플릿,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은 정당하다

이런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완전히 정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 등의 정부들과 <조선일보> 등의 우파 언론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하마스의 폭력적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위해 이스라엘이 동원하는 끔찍한 수단 문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자신들이 "침승들과 싸우고 있다"며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상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만 투쟁 수단의 정당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선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부당한 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폭력 둘 다를 규탄하는 양비론도 현상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수십 년 동안 억압당하며 온갖 형태의 저항을 해 왔습니다. 그들은 '국제 사회'의 중재에 기대를 걸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평화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적 행진에 총구를 대고 학살로 응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줄여서 BDS로 불린 국제적 불매 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데에

▶ 10면으로 이어짐

오슬로협정과 환멸, 하마스의 성장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가장 큰 도전은 제1차 인티파다, 즉 팔레스타인인들의 1987~1991년 대중 봉기였습니다.

당시 그 반란이 중동 전체를 뒤흔들 것을 우려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화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이른바 '두 국가 방안'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이끌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포섭해 1993년 오슬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건국과 전쟁을 통해 빼앗은 땅을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진정한 자치를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치구 곳곳에 분리 장벽

을 설치해 팔레스타인인들의 통행을 막고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경제적·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오슬로협정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빼앗아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했습니다.

계속되는 점령과 박해로 '두 국가 방안'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제2차 인티파다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기습을 주도한 하마스는 바로 그런 환멸과 저항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987년 인티파다 때 창립된 하마스는 처음에는 보건과 복지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오슬로협정 즈음에는 하마스는 PLO의 타협에 반대하며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모이는 초점이 됐습니다. 그 결과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는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하마스를 제거하려고 가자지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도 협상에 의한 해결책에 점차 이끄리게 됐습니다.

이 잔혹한 봉쇄가 그때 이후 지금까지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유일한 공항을 폭격해 파괴했고, 육로와 해로를 봉쇄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전기, 연료, 물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경제는 파탄났고, 현재 가자지구 내 실업률은 5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 극우의 성장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극우파의 영향력이 커져 왔습니다. 그들은 오슬로협정으로 합의된 '두 국가 방안'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팔레스타인을 아예 완전히 점령하고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우익성은 유대인 단일 민족 국가를 건설한다는 시온주의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나크바' 이후에도 이스라엘 안에는 상당수 팔레스타인인들이 남아 있었습

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 대한 지배를 이스라엘이 강화할수록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 사회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정치 세력도 그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지속됐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전면적 인종 청소를 주장하는 극우가 꾸준히 지지를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극우는 정부의 여러 요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극우 시온주의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마을을 습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는 짓을 자행했는데, 이런 일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전에 이미 올해 팔레스타인인 사상자 수는 2000년도 이래 최대였습니다.

▶ 9면에서 이어짐

는 약간의 성공을 거뒀지만, 점령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부 서방 국가들은 BDS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무기를 드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좌파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타리크 알리가 지적했듯이, 지금 존재의 위협에 처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민간인 살해와 불법 구금에 일상이 된 상황을 오랫동안 감내해 왔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권리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하마스를 비판하는 것은 그저 설교하고 훈계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마스의 이번 기습이 이스라엘에 타격을 준 것을 반기면서,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인과 한국인이 함께했다

이번 공격의 파장과 현 상황의 잠재력

어떤 사람들은 하마스의 공격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 명분만 줬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실제로 무자비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번 공격으로 얻은 성과를 봐야 합니다.

이번 공격은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온 이스라엘이 결코 천하무적이 아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쌓은 분리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치욕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아랍 대중에게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보복 공격을 퍼부어도 이런 정치적 성과를 쉽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팔레스타인인들은 1987년 인티파다를 비롯해 여러 차례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일시 승리할지라

도,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한편, 현 상황은 미국의 중동 장악력이 약화돼 온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소위 '테러와의 전쟁' 실패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줄어든 사이에 그 지역 강국들이 그 공백을 메우려 경쟁해 왔습니다. 특히 이란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부상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도 중동에서 무시 못할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을 후원해 온 미국의 위신에도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지배자들은 이 일로 인해 기존 중동 질서의 균열이 더 커질까 봐 염려하는 듯합니다. 바이든은 "이 상황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적대 세력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동지중해에 핵항공모함을 즉각 배치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며 이번 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외려 이는 중동 전반에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

킬 선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 상황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동 대중은 이번 공세에 고무돼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이스라엘 국경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도 대규모 연대 시위가 벌어져,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지 않는 자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변국인 이집트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대중 행동은 제국주의에 협력해 온 중동 지배자들을 난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1968년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구정 공세는 비록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미국 등지에서 반전 운동과 신좌파 운동을 고무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번 저항도 서구 좌파가 제대로 응답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해방의 전망

물론 이스라엘의 막강한 무력에 직면해 영웅적인 무장 저항만으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승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하려면 중동 전역에서 대중 운동이 일어나 제국주의와 그에 협조하는 자국 정부에 맞서며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동 정부들은 말로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편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국주의와 협력하고 자국 민중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평등의 이상을 표방하는 팔레스타인 저항을 제대로 지원해 줄 리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올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네타냐후의 극우 연정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끈 사람들은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놓고 네타냐후와 다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하마스의 공격 이후 그들은 네타냐후가 제안한 거국 내각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착민 식민 지배 국가가 해체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그 국가를 지탱해 주는 서방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쇄해야 합니다.

바로 중동 대중의 투쟁이 그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잠재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를 날려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그 혁명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 혁명은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이집트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2011년 아랍 혁명은 2년 뒤 패배했지만, 2019년 수단과 알제리의 혁명, 그리고 최근 이라크, 레바논 등지에서 일어난 시위 물결은 중동에서 다시 격변이 일어날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중동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가한 타격은 중동에서 다시금 반란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팔레스타인 저항에 지지와 연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한 정의당의 양비론

10월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격화된 분쟁의 원인엔 이스라엘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도,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이 “전쟁 범죄”라고 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사이에서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전쟁 범죄”라는 무시무시한 용어에 착목한다면 하마스를 더 강하게 규탄하는 듯하다.

아무튼 현 상황을 두 극단적 세력 간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잘못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폭력은 그 정도, 목적과 효과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

인종청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대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건국된 강탈 국가다. 그리고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한 해 30조 원 가까운 국방예산을 쓰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이다.

그 힘을 이용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75년 동안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인종 청소를 자행해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년 가까이 가자 지구의 하늘·바다·땅을 봉쇄해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인 200만 명이 갇힌 ‘창살 없는 감옥’이 됐다. 2014년 가자 지구 공격을 지시한 이스라엘 국방장관 베니 간츠는 “가자를 석기 시대로 돌려 놓았다”고 떠들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 지구에 대한 전술을 “잔디깎기”라고 명명했다.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폭격, 임의적인 구금과 살해 등 “집단 처벌” 속에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해야 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마을을 통째로 제거하자고 거세게 외치는 자들이 요직을 차지한 극우 연정이다. 이들의 지원 속에 시온주의 정착민과 극우 폭도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다녔다.

이런 극악한 현실 속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태생의 저명한 유대인 역



생존을 위한 팔레스타인의 저항이 왜 “전쟁 범죄”인가?

사가 일란 파페는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억압자들이 파괴, 즉 사실 팔레스타인인 제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정부를 선출한 이때에 말이다.”

참말이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존속을 지키고 존립을 이루려면 무장 저항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생존

정의당은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 및 살상[은] ...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마스의 무장 저항은 앞서 언급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 하마스 전사들이 공격한 정착촌들의 경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땅을 빼앗고 세워진 곳들이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억압에 맞서 여러 형태의 비폭력 저항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폭력에 직면했다.

예컨대 2018년 가자 주민들은 70년 전 1948년 ‘나크바’[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 신생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날을 일컬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대규모 평화 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이 비무장 행진에 총격을 가했다. 어린이를 포함해 150여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다쳤다. 나중에 유엔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 고의적으로 실탄을 쏘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가자 지구 청년들은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으며 자라온 세대다. 그런 이들

이 무장 저항에 나선 것을 “폭력” 운운하며 비난하는 게 정의를 표방하는 정당일 할 말인가.

정의당은 폭력을 멈추고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질서다. 그 ‘국제 사회’ 중 서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몰았고, 동쪽은 그렇게 방치해 왔다.

게다가 정의당의 바람과는 달리, 이 질서에는 그 어떤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서구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편들어 왔다. 지금도 동지중해에는 ‘국제 사회’를 주도하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려고 출동해 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경비전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일란 파페는 서구의 이스라엘 지지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학살을 지속해도 된다는 백지 위임장.” 학살 허가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국제 사회의 중재”는 해법이 아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 개입은 팔레스타인에 무용하거나 해로웠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두 국가 방

안’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것’이라고 선전됐지만, 이스라엘의 토지 강탈과 정착촌 확대는 지속됐다. 빼앗긴 땅을 차지한 정착민들과 그들을 보호한답시고 횡포를 부리는 군대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겠는가.

학살 허가증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은 민간인들의 인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두 극단주의의 충돌이 결코 아니다.

제국주의의 후원을 받는 식민 정착자 국가의 인종 청소와 그에 맞선 피억압 민중의 무장 저항이다.

전자가 승리한다면 서구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가 강화되고 중동에서 억압과 착취는 더 강화될 것이다. 반면 후자가 승리한다면 시온주의는 물론이고 제국주의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 같은 친서방 국가에서 활동하는 좌파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지하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를 호소하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 충돌하는 양측에 대해 “폭력은 결코 폭력으로 잠재울 수 없다”며 한가한 훈계조 양비론을 펴는 것은 이 충돌의 본질적 성격을 오해하고, 그 결과가 중동과 더 넓은 세계에 미칠 효과를 오판하는 것이다. 자칫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지상군 투입 등 더한 참극에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서구 정부들과 보조를 맞추며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정부에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하는 것은 연목구어(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김영익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추동한 운동이 시온주의다. 그런데 시온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와 배척)라는 오해가 있다. 이 오해를 조장하는 주장은 이스라엘 옹호자들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다.

얼마 전 서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아랍인 시위 참가자들 몇몇이 외친 구호 하나를 빌미로 그 집회를 유대인 혐오 집회로 몰아갔다.

이런 비난은 사실 세계적 현상의 일부다. 예컨대, 영국의 좌파이자 노동당 대표였던 제러미 코빈은 이스라엘을 비판했는데, 당내 우파와 언론에게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난을 집요하게 받았다. 이는 그가 2019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한 요인이 됐다.

“유대인 혐오”라는 규정은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한다. 무엇보다도, 유대인 혐오는 역사에서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라는 재앙으로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대인 혐오란 무엇인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도덕적 ‘규탄’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무고한 자들을 겨냥한 위험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대인 혐오는 홀로코스트의 악명 때문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공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

유대인 혐오란 무엇인가?

유대인 혐오란 그저 “유대인이라서”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서”에 담긴 내용은 유대인에 관한 허구적 편견이다. 물론 이 편견은 다른 차별받는 집단에게 씌워지는 편견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일면을 이용해서 만들어지지만(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결국 현실의 상이한 유대인들을 허구적으로 뭉뚱그린 것에 불과하다. 가령 세계적인 금융 자본가들 가운데 조지 소로스 같은 유대인들이 몇 명 포함돼 있다 해서 신나치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다는 데마고기 선동을 한다.

그렇다면, 그 편견의 내용을 더 살펴 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유대인 혐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유대인



시온주의는 ‘유대인임’의 필수적 일부가 아니다. 2016년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참가한 유대인

에 관한 허구적 편견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실제로 벌이고 있는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무슨 짓을 했는가?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십만 명의 원주민을 내쫓고 학살했으며, 그후에도 남은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 왔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 내용이다.

물론 어떤 행위들은 행위자의 정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가령 이윤에 민감한 것은 기업인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가 ‘유대인임’의 필수적 일부인가?

시온주의는 근대 유럽의 유대인 박해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출현한 정치 운동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소수의 대응이었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은 사회주의 운동에 열성이었다.

시온주의가 크게 성장한 것은 1930년대에 사회주의 운동이 패배하고 파시즘이 부상하고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였다.

이런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 오늘날에는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여론이 결코 극소수라고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인종 청소가 당신 가치의 핵심적 일부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대다수는 분명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이다. 노암 촘스키 같은 유수 지식인들뿐 아니라 세계 곳곳

의 많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에 공감하고 연대 집회에도 참가한다. 게다가 유대교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반대하는 소수 유대교 정통파도 있다.

이스라엘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유대인의 말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은 원래 아랍인과 유대인이 공존하던 곳이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똑같은 것으로 보면서 이스라엘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밖에서 이런 연관 짓기는 팔레스타인의 참상에 분노한 일부 개인들이 때로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일은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논리와도 어긋난다. 그런 견해는 오히려 이 운동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운동이 약화될수록 오히려 그런 동일화가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모순

한편, 이스라엘 지지와 유대인 혐오가 꼭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시온주의자들의 우방들을 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동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

하는 등 시온주의자들을 적극 고무했다. 다른 한편, 지난 4월 트럼프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 앨빈 브래그에게 “조지 소로스가 엄선하고 후원한 자”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소로스는 오늘날 극우에게 세계를 조종하는 유대인 음모 집단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금융계의 큰손이다.

2018년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라고 묘사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도 네타냐후의 찬사를 듣기 전 선거 운동에서 소로스를 소재로 유대인 혐오 선동을 했다.

물론 오늘날 파시스트들(신나치)은 자신의 DNA에 각인된 유대인 혐오를 종종 숨긴다. 그러나 이를 무심결에(또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매우 사할적이다”고 말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바로 그렇다. 멜로니는 2019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소로스는] 좌파를 동맹으로 택하여 주권을 믿는 자들을 적으로 삼았다. ... 우리 이탈리아 형제당은 자랑스럽게 외친다. 그대, 돈 굴릴 생각일랑 하지 마라. 우리의 힘은 이탈리아인들이다.”

시온주의자들과 신나치가 서로를 용인하는 것은 사실 더 역사가 깊다.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의 시온주의 조직은 히틀러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서신을 보냈다. 나치는 사회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의 저항 조직을 분쇄하면서도 시온주의자들의 활동은 계속 용인했다. 주요 시온주의 조직들은 그들대로 독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보이콧을 약화시키려 노력했다.

사실 시온주의는 파시즘과 근본 가정을 공유한다. 유대인 혐오는 극복 불가능한 것이고 유대인은 다른 인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차별적 편견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 질서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재생산되고 부추겨지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은 돌봄을 맡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은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구실을 한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도 나름의 역사와 독특한 기능이 있었다. 특히, 유대인 혐오는 단지 가난한 이민자들의 존재 만으로는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없는 세계적인 경제·사회·정치 대위기의

▶ 13면으로 이어짐

하마스의 폭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프란츠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에 부친 장폴 사르트르의 서문

프란츠 파농은 알제리해방전선 지도자 중 한 명이고 1961년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국역: 그린비, 2010)이라는 영감 가득한 책을 냈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이자 저명한 저술가인 **장폴 사르트르**(1905~1980)는 파농의 그 책에 짧지 않은 추천사를 썼다. 그 글에서 사르트르는 프랑스 좌파에게 알제리인들의 무장 투쟁을 지지하고 자신의 투쟁처럼 여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의 글은 사르트르 글의 발췌이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넣은 것이다.

이 책[《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을 읽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책을 읽으면 첫째, 당신은 창피함을 느낄 테지만, 창피함은 (마르크스도 말했듯이) 혁명적 감정에 속한다. 유럽인으로서 나는 적진[프랑스에 대항하는 알제리인들의] 책을 훑쳐서 유럽을 위한 치료제를 만들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길 바란다.

이 책을 읽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조르주] 소렐의 파시즘 냄새가 나는 주장을 논외로 한다면, 파농이야말로 엥겔스 이후로 처음으로 역사적 과정을 밝히 들춰 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파농이 폭력에 관해 흔히 않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난폭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파농은 다만 현 상황을 해석할 뿐이다.

식민주의자들이 자행하는 폭력은 단지 식민지 민중과 거리를 두려고 자행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적은 식민지 민중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이다. ... 농민에게 총구를 들이밀고 외지인들이 들이닥쳐 땅을 빼앗고, 그들을 위해 농사를 지으라고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저항하는 농민은 병사들의 총에 맞아 시체가 될 것이다.



암살당한 팔레스타인 지도자의 2022년 장례식

만약 굴복한다면, 그는 전보다 더 낮은 존재로 격하되고 인간이 아닌 것이 된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의 인격을 분열시키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자아를 파괴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자들은 목적을 한참 달성하지 못했다. 콩고에서는 흑인들의 손목을 자르고, 앙골라에서는 불만 분자의 입을 막으려고 입술에 구멍을 뚫어 쇠자 물쇠를 달았는데 말이다. 나는 인간을 결코 짐승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을 심각하게 악화시키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록

알제리와 앙골라에서 유럽인들은 눈에 띄는 즉시 도록당하고 있다. ... “자유주의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우리가 토착민들을 충분히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가능한 선 안에서 일부 권리들을 인정하는 편이 더 현명하고 공평했겠다고 토로한다. 그들이 촉구하는 것은 토착민들에게 도움도 주지 않은 채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인류라는 아주 사치스러운 클럽에 조금씩 끼워 줘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토착민들의 이 야만적이고 광적으로 분출하는 폭력은 자유주의자들도 고약한 정착민 못지않게 가차없이 처단하고 있다. 본국의 좌파는 당황하고 있다. 그들은 토착민들이 처한 실제 상황과 토착민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억압을 안다. 그들은 토착민들의 반란을 규탄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반란을 조래한 모든 책임이 바로 우리[유럽인]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이 게릴라들이 최대한으로 기사도적인 모습을 보여 줄 필요는 있다고 말이다. 그들은 그것이 게릴라들도 인간임을 보일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때때로 좌파는 게릴라들을 꾸짖는다. “당신들은 너무 막 나가고 있다. 우리는 더는 당신을 지지할 수 없다.” 토착민들은 그런 자들의 지지에 조금치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익은 변기통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것들뿐이기 때문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냉혹한 진실을 마주했다. 우리 중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토착민들의 희생 위에 얻은 무언가를 작을지언정 누리고 있다는 진실 말이다. 토착민들은 어떠한 목격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토착민들은 누구에게도 편의를 봐 주지 않는다.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들도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파농을 읽어야 한다. 파농은 지금의 억제될 수 없는 폭력이 무익한 울부짖음이나 야만적 본능의 부활, 심지어 원한의 결과도 아닌 인간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한때 다음의 진실을 이해했지만 어느 순간 잊고 말았다. 어떠한 신사적인 태도로도 폭력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오

직 폭력 그 자체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정착민들을 무력으로 몰아내면서 토착민들은 식민 지배가 안겨 준 신경증을 치유한다. 끓어넘치는 분노 속에서 그는 잃었던 순수함을 재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아를 만드는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토착민들의 전쟁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야만의 득세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주체적 행위를 통해 반란자들은 더딜지언정 확실하게 해방을 성취한다. 그런 행위를 통해 식민 지배의 상처를 자신의 내부와 그의 주변에서 한 조각씩 파괴하기 때문이다.

반란자들의 무기 사용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증거다. 반란의 첫 시기에 살상은 필수적인 것이다. 유럽인을 죽이는 것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성취한다. 압제자뿐 아니라 그 압제자가 지배하던 인간을 함께 파괴하는 것이다. 한 명은 시체로 남고, 다른 한 명은 해방된 인간으로 남는다. 살아남은 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밟고 있는 것이 자기 민족의 땅이라고 느낀다.

이것이 변증법의 귀결이다. 당신은 이 전쟁을 비난하지만 알제리 투사들의 편에 서겠다고는 감히 선언하지 않는다. 걱정 마라, 정착민들과 용병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당신이 더는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이다. 마침내 더는 도망갈 곳이 없는 순간이 닥치면, 낡고 되풀이되던 범죄들이 당신 안에 씨뿌려 놓은 폭력에 당신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에 관해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때가 도래하고 있고, 단언컨대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자들의 대열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출처 'Preface to Franz Fanon's "Wretched of the Earth"' (1961). Marxist Internet Archive / 번역 김중환

▶ 12면에서 이어짐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유용한 구실을 했다. 소로스가 오늘날 유대인 혐오의 단골 소재가 되는 이유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

기에 유대인 혐오는 이스라엘 반대의 산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스라엘도 그 일부다)의 산물이다. 그래서 결국 그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을 점이 있다. 이스라

엘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왜 그런 무지막지한 도덕적 폭탄을 던지는가?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수십만 명을 일거에 난민으로 만들고, 그후 수십 년에 걸쳐

학살하고 고문하고 짓밟은 것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 혐오 말라’는 논리는 거꾸로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범죄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이원웅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은 비난받을 악행인가?

김인식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인질로 잡자 비난이 들끓는다.(영아들을 참수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이번 호에 실린 기사 ‘하마스의 어린이 참수?: 언론의 이스라엘 전쟁 범죄 옹호 거짓말’을 보시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순전한 악행”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도 하마스를 규탄했다.

거짓말임은 물론이고 역겨운 위선이다.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인의 폭력은 반대하고 억압하는 이스라엘의 폭력은 편드는 것이다.

한편,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한 다면서도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을 비난



“우리의 시체에만 연대하고 우리의 로켓포를 거부하는 자들은 위선자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의당은 아예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지지하지 않는 노골적 양비론을 펴고 있다.(이번 호에 실린 기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한 정의당의 양비론’을 보시오.)

대체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이 “규칙,”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전쟁 범죄”라는 비난이다.

그러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은 페어플레이가 기대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해 온 국가다. 이스라엘의 점령을 비난하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수많은 유엔 결의안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규칙”이니 “국제법”이니 하는 허상이 아니라 차라리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의 노골적인 언사가 팔레스타인의 냉혹한 현실을 소름 끼치게 잘 나타낸다. 그는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짐승”이라고 말했다. 나치가 유대인을 “인간 이하의 것들”이라고 규정하며 학살한 것을 연상케 해 섬뜩하다.

갈란트의 말인즉슨, 인도적 전쟁 규칙 따위는 없으니 이스라엘 병사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팔레스타인인을 죽이라는 것이다. 이들 대다수가 민간인이다!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도 비슷한 말을 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을 날려버리고 테러리스트를 제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천 명이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지난 75년 동안 그런 취급을 당해 왔다.

하마스의 이번 군사 작전 전에도 이

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체계적으로 잔인하게 공격했다. 이번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살해당한 가자 인근의 유대인 정착촌은, 팔레스타인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청소’해 그 자리를 유대인들로 채워넣은 식민화의 산물이다.

이스라엘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야만 행위를 합리화했다. 그러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은 테러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인 측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철저하게 폭력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의 무장 투쟁은 식민 지배 체제를 물리치는 데서 불가피하다.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자이자 알제리 민족해방 운동의 지도자였던 프란츠 파농(1925~1961)은 이렇게 주장했다: 식민지에서의 무장 투쟁은 식민지 인민을 단결시키고 권능을 부여하며 타협을 추구하는 중간계급 지도자들의 배신을 견제할 수단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의 전례없는 공격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었다.([팔레스타인인이 말한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경향신문>이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으로 네타냐후만 득을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근시안적 시야일 뿐이다.

민간인 공격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민간인 공격 문제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돼야 한다. 특히, 전투 수단의 정당성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수행하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과 마찬가지로 오직 투쟁의 역사적·정치적 내용과 목적에 달려 있다.

예컨대, 현재 인질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으로부터 가자 지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은 유혈낭자한 확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책을 하마스의 잔인한 악행이라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폭력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관계 없는 가용 방편의 문제다.

마치 살인범이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살인범을 죽여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와 비슷한 것이다.

인간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절대 해치지 말아야 한다면, 제국주의자들과 억압자들에 맞서는 전쟁과 혁명은 절대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려면 필박하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폭력은 부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정언명령적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피억압자들의 저항을 지지하므로, 억압자들이 피억압자들의 폭력을 비난하는 것에 결코 동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일단 토 달지 않고 지지한다.

그리고는 토를 달더라도, 그것은 동지적인 것이어야지, 회색지대에 서서 설교하고 훈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나름의 사회주의적 또는 계급투쟁적 전망은 선전의 맥락에서 제시돼야지, 당면한 과제와 대립시켜 제시될 일은 아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인의 투쟁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제국주의, 아랍 지배자들 모두에 맞선 국제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연대와 결합돼야 한다. 그럴 때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략 문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적절한 전술)와 단순히 대립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추상적 종파주의일 뿐이다.

“국제 사회”의 중재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 팔레스타인인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려고 1987년에 창립한 민족독립 저항 무장 단체다. 근래에 협상에 의한 해결책에 이끌린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하마스는 만만찮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1987년과 2000년 인티파다(봉기) 때 하마스의 무장 투쟁은 대중 저항과 결합됐다. 하마스는 네타냐후와 “적대적 공생 관계”(《경향신문》의 규정)에 있는 “극단 세력”이 아니다. “극우”는 더더욱 아니다.

하마스의 투쟁 방법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저항을 통해 해방될 수 없다는 비관론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이나 “국제 사회”의 중재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그 국가의 존재 근거상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이스라엘 국가는 시온주의 운동이 8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고향에서 쫓아낸 나크바(대재앙이라는 뜻, 1948년)를 통해 건국됐다. 1982년에는 사브라·샤틸라 난민촌 학살이 있었다.

2012년 카나 대학살은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체결된 “평화 프로세스”(두 국가 방안)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두 국가 방안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두 개의 독자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 평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린 기사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을 보시오.)

커지는 반윤석열 정서 속에 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10월 13일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측에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신체적·정신적 탈진 속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파업 2일째인 10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시청역~송례문)에 파업 중인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수천 명이 모여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파업 노동자들은 밝은 표정 속에 힘차게 구호를 외쳤고, 정부와 사측을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는 소식도 노동자들의 기운을 북돋웠을 것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희승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직원들의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목소리에 ‘병원에 돈이 없다’,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참여해서 버티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의사들에게 수당 100억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 인력 충원을 수없이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귀



10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파업 집회

기울이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병원장은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대와 경북대 병원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며, 왜 충북대, 강원대 등 수많은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조영은 경북대병원분회 조직부장도 발언을 이어 갔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려고 실제 근무 시간보다 1~2시간 일찍 출근해 전산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간호사들에게는 화장실 갈 시간, 밥 먹는 시간뿐 아니라 물 마시는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을 많이 갈까 봐 물조차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불법의료(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것) 근절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공동 파업 투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조차 사치

윤석열 정부와 사측이 인력과 임금을 옥죄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에 임금 억제와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에서 직

원 간 경쟁과 갈등이 부추겨질 것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은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서울대병원 사측은 진료량(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 시간)과 진료 수익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진료 기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성과 경쟁으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희생에 대한 보상과 실질임금 인상, 인력 충원 요구는 전 세계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공통 요구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이에 맞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호주, 독일 등에서 병원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분출했다. 이 투쟁들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따내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보건 의료 노동자 파업이 있었다.(관련 기사: 본지 476호, '격화되는 미국 정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투쟁')

한국에서도 올해 7월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고, 우호적 여론 속에서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적으로 표출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보여 주듯, 노동자 등 서민층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크게 자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심화하는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를 활용해 굳건히 투쟁을 지속해 나가, 요구 사항들을 쟁취하길 응원한다.

신정환

▶ 16면에서 이어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면책은 공정한 조사를 방해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법들이 개정되더라도 교사들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가 힘들 것이다. 법이 개정돼도 ‘정당한 생활지도’를 둘러싸고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를 소송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효과적인 방파제가 될 수 없다.

또, 이미 법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극히 적은 까닭이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은 학부모들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곧장 아동학대 신고나 수사 또는 소송으로 가기보다 교육계 안에서 논의되고 조정되도록 하는 중재 기구의 설치이다. 이미 여러 교원단체는 교육청 내에 아동학대 사례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많은 교사는 이런 위원회를 불신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아동학대 수사를 하면, 소위 전문가들이나 민간 아동보호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는데 여

기서 교사의 의견은 대체로 무시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재 기구가 없다면 교사는 곧장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재 기구에 교사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식으로 공정한 기구가 되도록 요구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중재 기구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사의 권한(교권)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교사의 권한이 명확해지고 이 권한이 공정하게 사용될 때 학생·학부모의 신뢰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국내 팔레스타인인 학생 인터뷰
“연대 시위는 팔레스타인인 외롭지 않다는 최고의 응원”
- ★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 ★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 ★ 빛의 구렁텅이에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정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행만 위하고 있습니다”
- ★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



교권 보호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강동훈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대체로 교사의 교권을 재천명하는 상징적인 입법이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조치가 시행되려면 인력과 예산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해, 수업 방해 등을 하는 학생을 일시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만 명시했지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는 문제는 각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또한 분리 장소, 시간, 분리 학생 학습 지원 방안 등은 학칙으로 정하라고 해 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학교민원대응팀 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교사, 행정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민원대응팀 구성을 대책으로 내놔지만, 이를 위한 추가 인력과 재정 지원 방안은 없다.

이 때문에 그 대책들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과중한 상태인데도 말이다.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



말실에서 준비된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예산·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내년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최대 삭감 분야는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6조 원 넘게 감액된 95조 6254억 원에 그쳤고, 이 가운데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무려 7조 1714억 원(8.9퍼센트)이나 삭감됐다.

교사 선발도 대폭 줄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 대비 유치원 교사 118명, 초등 교사는 404명, 중등교사는 380명을 줄이는 계획을 밝혔다.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 마당에 인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대책 마련보다는 생색내기식 간담회 개최와 홍보와 선전에만 급급하다. 10월 6일에는 교사 20명을 초청해 윤석열이 직접 면담하고는 20여 년간 거의 동결돼 있던 몇몇 수당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물론 수당 인상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미 수

년간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못 미쳐 온 임금인상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윤석열은 또한 간담회에서 정부 부처와의 사전 조율도 없이 즉흥적으로 '학폭 업무 경찰 이관'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학교 폭력 사안 중 일부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져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심지어 학부모들의 소송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지거나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학교폭력 업무를 전적으로 경찰에 넘겨 교육적 해결 기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구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조치가 '공교육 회복'은 커녕 학교 현장이 소송과 맞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만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말뿐인 교권 보호 대책 때문에 교사들은 행동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10월 14일과 28일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교육예산 긴축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정한 중재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

'교권보호 4법' 중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많은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전면 개정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처벌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률들이 아동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황에서 교사만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는 (소수 사례일지라도) 일탈 사례를 허용할 여지를 남겨둔다. 교사의 아동학대가 매우 드문 일일지라도 아동학대가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인가?

10월 18일(수) 오후 8시

발제 이원웅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1018-ws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